

다산포럼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

다산 정약용은 규장각에 근무할 때 청나라에서 수입한 ‘고금도서집성’ (古今圖書集成)과 ‘고공전’ (考工典) 240권, 박제가가 지은 ‘북학의’ (北學議), 박지원의 ‘열화일기’ (熱河日記)를 보며 중국 문물제도의 높은 수준을 알게 되었다. 직접 중국에 가서 청나라의 발전상을 보지 못한 것은 안타까웠지만, 다산은 자신의 현실에서 중국의 선진화된 문화를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선 사회의 이용후생(利用厚生)을 추구하였다.

다산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보다 문물이 우수한 나라에서 신문물을 배워 와서 이를 나라에 적용시켜 발전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하여 ‘이용감’(利用監)이란 기구를 설치, 중국에 가서 수준 높은 기술들을 배워 오게 하는 것을 직분으로 삼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산은 관상감과 사역원(司譯院)의 관원 중에서 수리(數理)에 정통하고 중국어에 익숙한 관원을 선발하여 이용감에 배치한 뒤 해마다 중국에 보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아니면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구

다산이 제안한 ‘이용감과 전계사 설치’

를 매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기구를 조선으로 가지고 와서 똑같이 물건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하면 10년을 넘지 않아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고, 나라가 부유해지고 군사도 강해져서 다시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치욕과 비웃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산은 여기에 더해 이용감을 통해 새롭게 배워 온 기술을 갖고 ‘전계사’(典機司)라는 기관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필요한 수레를 제작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의 상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레 사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용감에서 중국의 수레 제도를 도입해 오면 전계사에서 만든 뒤 백성들이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레 제작은 북쪽에 있는 중국에서 배우고, 선박 제조는 남쪽에 있는 일본·유구(琉球, 류슈)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이를 규격화하여 제작해야 한다는 다산의 구상은 매우 개방적이다. 오로지 중국에만 의존하던 생각을 뛰어넘어 동서남북의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인정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국가를 개혁하고 백성들의 삶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혁신적 구상이었다.

다산의 이용감 설치는 실로 개방적 사고이자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고견이다. 조선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폐쇄성이다. 그리하여 조선은 중국과의 사대(事大) 관계만을 중시하고 서양 국가들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다. 그러나 당시 청나라는 서양 국가와 개방적 관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강화제부터 건륭제에 이

르기까지 ‘강건성세’(康乾盛世)라 불리는 문화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그 때문에 북학파인 박제가는 1786년(정조 10년) ‘병오소회’(丙午所懷)에서 조선이 서양 선교사와 교류를 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정조는 주자 성리학에 몰두해 있던 양반 사대부들의 눈치를 보느라 수용하지 못했다. 개혁 군주인 정조마저 서양과의 교류를 주저할 정도였으니, 그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이 ‘정체된 조선’이었다.

다산은 이용감 관원들이 조선에는 없는 신기술을 중국에서 도입할 때 그 기술을 정당하게 배울 수 있다면 상당한 비용을 뇌물로 주고서라도 배워야 한다는 생각마저 가지고 있었다. 그래야만 수입된 기술 혹은 기구를 숙련된 기술자들이 새로 만들어 조선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조선의 조정이 약간의 편법을 사용하더라도 국가 발전을 위한 신기술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보다 보면 나라를 위한 다산의 생각이 참으로 절박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신기술을 배워 올 수 있도록 이용감을 설치하자는 다산의 생각을 계승하는 일을 해야 한다. 가령 정부가 국가 신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 조정을 통해 반드시 ‘국가신기술개발위원회’ 혹은 ‘국가신기술개발처’를 조직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둡지 않을 것이다.

경제이야기

나의 큰 바위 얼굴



이정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교수

얼마 전 영암의 월출산에 갔다가 뜻밖에 ‘큰 바위 얼굴’을 보았다. 월출산은 기묘모양 암봉이 많아 수석 전시장을 방불케 하기 때문에, 보는 각도에 따라 많은 형상을 상상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큰 바위 얼굴의 원조격인 미국 뉴햄프셔의 화이트 마운틴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크고 얼굴 형상이 뚜렷하였다.

혹자는 화이트 마운틴의 큰 바위 얼굴이 무너져 내린 지 5년 만에 그 다섯 배가 넘는 웅장한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땅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믿거나 말거나? 비과학적인 것은 통통 믿지 못하는 의심쟁이 무신론자인 필자도 이 거짓말 같은 전설을 굳게 믿는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한다.

‘큰 바위 얼굴’은 어린이들의 마음속 이상을 뜻한다. 주홍글씨로 유명한 19세기 미국의 소설가 나세니얼 호손의 작품으로 옛날에는 우리나라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었다. 주인공 ‘어니스트’는 바위산에 나타난 큰 바위 얼굴을 보며 언젠가 큰 바위 얼굴처럼 생긴 훌륭한

한 인물이 나타날 거라고 믿으며 자란다.

엄청난 부자가 큰 바위 얼굴이라며 나타났지만 달지 않았다. 유명한 장군, 정치가, 시인이 나타났지만 모두 큰 바위 얼굴이 아니었다. 세월이 흘러 어니스트가 전도사가 되어 설교를 하던 중 설교를 듣던 시인이 어니스트가 바로 큰 바위 얼굴과 똑같다고 소리친다. 평범하지만 올바르게 살아가는 어니스트가 바로 큰 바위 얼굴이었던 것이다.

필자에게도 나만의 큰 바위 얼굴이 있다. 놀라지 마시라. 나의 큰 바위 얼굴은 바로 ‘대한민국’이다. 편협한 국수주의 애국주의자라고 놀려도 좋다. 필자가 여러 강의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이유를 수많은 근거를 들어 열변을 토했지만 청중들은 잘 믿지 않는 눈치였다.

세계 일곱 번째 3050클럽(국민 소득 3만 불 이상 국가 중 인구가 5000만 명 이상인 나라) 회원이며, 세계 다섯 번째 경상수지 흑자국, IT 인프라, 사대 수명, 치안, 위생, 도시 인프라 등이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 등 우리가 선진국인 근거는 차고도 넘친다. 수많은 근거에도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 나머지 저성장 기조를 처음 경험해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큰 바위 얼굴’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일지 모른다고 우리 국민들도 믿기 시작했다. 최고의 IT 기술을 기반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전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

탕으로 하는 K방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원조 큰 바위 얼굴 미국은 어떤가? 코로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 명백한 방역 실패다. 그럼에도 경제 또한 최악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필라델피아 중앙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미국의 세입자들이 내지 못하는 집세가 총 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전세 제도가 없는 미국에서는 근로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는 순간 월세를 감당할 길이 없어 바로 길거리로 나가야 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임차인의 4분의 1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3000만~4000만 명의 세입자가 퇴거 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미 정부가 코로나19의 대응 조치로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집주인이 쫓아내지 못하도록 한 조치가 내년 1월에 종료하기 때문이다. 원조 큰 바위 얼굴의 몰락이다.

이 시대 최고의 지성으로 평가받는 유발 하라리는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서 글로벌 연대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이야말로 ‘프리버시’와 ‘공중 보건’이라는 가치를 조화롭게 달성한 모범국으로 칭송하였다. 유발 하라리가 무너진 미국 화이트 마운틴 큰 바위 얼굴의 대안을 찾는다면 한치의 망설임 없이 대한민국을 찾을 것이다. 물론 필자는 의기양양하게 그를 월출산으로 안내할 것이다.

社說

첫걸음 떼 ‘행정 통합’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 지사는 어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만나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날 합의문에는 여섯 가지 사항이 담겼다. 첫째, 통합 논의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고 행정은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둘째, 통합 논의의 내용·방법·절차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한다.

셋째, 2단계로 용역 기간 1년과 검토·준비 기간 6개월을 거쳐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한다. 넷째, 통합 단계상의 권한을 강화해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재정 지원 확보 등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상호 협력한다. 다섯째, 통합청사 소재지 문제가 통합 논의의 걸림돌이 돼선 안되며 현 시청과 도청은 통합 이후에도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이번 합의와 관련 이 시장은 “시도지사 간 합의는 새로운 광주·전남 시대를 열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도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닌 셋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초광역권 협력사업 추진·경제협력 공동체 구축·행정 통합의 단계적 접근을 제시했다.

양 시도 수장이 뒤늦게나마 행정 통합의 의의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구상해야 한다. 통합 연구 용역을 시행하게 될 광주전남연구원도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과제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지역 균형 뉴딜’ 경계 넘어 큰 그림 그려야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적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을 지역 발전의 전기로 삼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한데 광주·전남은 다른 권역에 비해 사업 규모가 작고 지역의 미래를 바꿀 만한 새로운 프로젝트도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판 뉴딜에는 오는 2025년까지 모두 16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그 가운데 지역의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균형 뉴딜’에는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75조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타 지역에서는 대형 사업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에도 부산·울산·경남권은 31개 사업 12조 8642억 원, 대구·경북권 23개 사업 4조 2540억 원, 대전·충청권은 20개 사업 6조 1959억 원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반면 광주·전남권은 7개 사업 1조 8516억 원에 그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

도가 소지역주의에 사로잡혀 지역 경계를 넘어서는 대형 프로젝트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광주의 광주역과 전남 서부의 무안국제공항, 전남 동부의 여수·광안항을 삼각축으로 뉴딜 사업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제안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전국 시도지사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해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균형 뉴딜의 핵심이 지역 주도의 초광역권 구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시도 행정 통합 논의를 공식화하고 향후 절차에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시도는 정부의 뉴딜 정책에 맞춰 낙후를 벗고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초광역권 협력 사업부터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無等鼓

“삼가 이 한편을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쓰여진(쓰러진) 이름 없는 별들 앞에 바치나이다.” 1959년 11월 3일, 광주를 비롯한 전국 8대 도시에서 의미 있는 영화 한편이 동시에 개봉된다. ‘이름 없는 별들’. 영화는 1929년 광주학생 독립운동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을 상징하는 ‘이름 없는 별들’에게 바치는 헌사(獻詞)로 시작한다.

김강운 감독의 데뷔작인 이 영화는 함평 출신인 아세아 영화사 이재명 대표가 제작하고, 역시 함평 출신인 최금동작가가 시나리오를 썼다. ‘눈물의 여왕’으로 불렸던 전옥수

시위 장면이다. 광주에서 모두 현지촬영(올 로케이션)된 영화는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중고등학교의 전폭적인 협조를 받았다. 그리고 단역(엑스트라)으로 영화에 출연했던 이 학생들은 이듬해 4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거리로 나온다. 부패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을 몰아내는 ‘4·19 혁명’에 참여한 것이다.

광주 학생독립운동은 올해로 91주년을 맞았다. 오늘 국가보훈처와 교육부 공동 주관으로 광주 서구 학생독립운동 기념탑

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기념식이 열린다.

또 광주시 동구 광주 독립영화관에서는 영화 ‘이름 없는 별들’이 상영되고(3일과 7일), 관련 특강(위경혜 전남대 학술연구 교수)도 진행된다. 앞서 광주일고는 지난달 30일 개교 100주년 기념식을 열고 독립운동을 하다 퇴학 처분된 동문 177명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60여년 전 제작된 한편의 영화를 통해 학생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1950년대 말 옛 광주역 등 광주·전남 지역의 사라진 풍경을 추억하는 것도 좋을 듯싶다. /송기웅 문화2부장 song@

이름 없는 별들

김강운 감독의 데뷔작인 이 영화는 함평 출신인 아세아 영화사 이재명 대표가 제작하고, 역시 함평 출신인 최금동작가가 시나리오를 썼다. ‘눈물의 여왕’으로 불렸던 전옥수 등 당대의 유명 배우들이 대거 출연했다. 광주에서는 광주극장과 동방극장(무등극장 전신)에서 상영됐다. 개봉 당시 전남일보(현 광주일보)에 게재된 영화 광고는 “한국 영화사상 최대·초유의 제작비로 성실하게 사설(史實)을 재현한 대웅편(大雄篇·뛰어난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영화의 정점(頂點: 하이라이트)은 교문에 걸린 일장기를 건어 내고 성난 파도처럼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학생들의 가두

마르세유와 광화문 그리고 공익을 위한 독재

우려하고, 이쪽 의회에서는 코로나의 성공적 통제가 정권 연장으로 갈 것을 두려워 한다. 한쪽 의사들은 감염 검사의 적정성을 비판하고, 이쪽 의사들은 권익을 위해 용감하게 파업을 감행한다.

정부를 살펴보자. 저쪽은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쪽은 통제 가능 영역에 묶어 놓고 있다. 저쪽은 보건과 인권에 대한 논쟁으로 날이 새고, 이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익적 통제를 위해 경찰을 투입한다. 저쪽의 식자들은 다원성과 민주주의가 코로나를 물리칠 것이라고 하고, 이쪽의 행정가들은 공익을 위해 공권력을 투입한다. 저쪽에서는 이쪽을 ‘통제 국가’라고 하고, 이쪽에서는 저쪽을 향해 ‘살전 민주주의’라고 한다. 이쪽에서는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고, 저쪽에서는 집단 면역을 실현한다.

이쪽에서는 보건과 경제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라고 하고, 저쪽에서는 중국식 통제 국가라고 한다. 저쪽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통제 자체를 반대하며 목숨을 걸고 다양성의 가치를 옹호하고, 이쪽에서는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의 본질을 잘 구현하여, 소위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시기라고 한다. 교육에 있어서도 이쪽에서는 등교하지 못하는 날에는 원격 수업을 병행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지만, 저들은 일제히 학교를 폐쇄한다.

확진자는 폭발하고 있는데 집회 시위와 테러로 연일 들끓고 있는 유럽의 모습은 쇠락한 문명의 끝자락을 보고 있는 것도 같고,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는 여

의도의 분해를 묵묵히 인내하며,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피부가 되어 버린 마스크 너머의 처연한 눈망울은 평화로운 시절 다가올 심판의 날을 예약한다.

공익을 위해 일정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엔지 음흉한 그림자가 비친다. 국가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분단 국가라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했던 과거 독재 권력들의 그림자가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차이가 있다. 자기 권력을 위해 국가 발전이라는 정치적 선동을 일삼던 파시즘 세력과 오직 공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예외를 통제하는 체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거기에는 위정자들이 있고, 여기에는 선량한 보건 당국자들이 있다. 거기에는 우민화와 감시가 있었고, 여기에는 위민 정신과 투명성이 있다.

아시아적 생산 양식의 최정점에 있는 한국은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보건과 경제, 보건과 교육, 보건과 민주주의, 보건과 문화예술, 보건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다. 말이 쉽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확률이 매우 높은 단 한 가지 전략이 있다. 유일한 방법은 한 명도 열외 없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손에 손잡고 토크몰이를 하는 것이다. 옷에 흠뻑물이 묻고, 힘쓰는 자는 넘어지기도 할 것이다. 그렇게 함께 일으켜 세우며 잡는 토끼이기에 모두의 것이 아니겠는가.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속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